나를 치유하는 길

엊그제 코엑스에 갔다 국화 전시회를 보았다. 객원교사로 나가는 고등학교 문예반 아이들과 조조 영화를 보러 간 길이었다. 새끼손톱만한 소국에서 사발만한 대국까지 배부르게 구경했다. 그 중 수학교과서에 나오는 도형처럼 생긴 화분이 있어 밑을 들여다보니 멀리서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늠름한 놈들이 다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동그라미 별 · 지도 · 모양 등 갖가지 모양의 화분 속에서 각자 맡겨진 자리에 꽂힌 꽃들은 뿌리와 절연되어, 향기도 안 나고 벌도 날아들지 않아 말하자면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보였다. 남에게 '展示되는 삶'이란 얼마나 자연스럽지 못한가. 소국보다 크고 잘생겼다는 이유로 몸값 비싸게 팔려와 박제가 된 듯한 생을 견디고 있는 그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나는 압정에 꽂힌 국화였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더니 집 안팎에서 일이 몰려들던 최근 몇 년 나는 짐 많은 가난한 중년 여자의 삶을 고스란히 살아온 것 같다.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며 신호탄을 쏘더니, 하나뿐인 딸아이까지 자꾸 토하며 먹지를 못했다. 겨우 수술 끝내고 딸아이를 추스리고 나서부터 나의 진짜 행군은 시작되었다. 딸 하나 없는 양반이 골골한 데다 능력 없이 바쁘기만 한 유일한 며느리가 나라니, 어머니도 참 복도 지지리 없는 분이다. 두 번의 수술과 치료 과정 속에서 치매까지 겹친 어머니는 차츰 걸음도 못 걷고 대소변도 가릴 수가 없게 되었다. 아이에게 먹고 싸는 일이 중대사이듯 환자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는 배 부르고 속 편하면 웃고 놀지만, 대개의 환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차츰 그는 내게 부엌에서 숟가락 드는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댔다.

몸이 고된 것은 그렇다 치고, 내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내 안에 미움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자괴감과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회한이었다. 불쌍하고 미운 마음과 화나고 안쓰러운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의 지옥을 살고 있는 내게 어머니와 어머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게 준 것은 위로 대신 억압이었고 연민이 아닌 당연한 의무 이행이었다. 그러나 나의 감정을 돌볼 틈은 없었다.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모든 것을 유예하고 내게 오는 하루만을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과 마음을 치유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일찍 깨달았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그게 가능했으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어머니는 지난 세월 자신이 원치 않는 인생 속에서 모든 일을 숙제하듯 치뤘다. 그 숙제는 쓰러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쓰러져서도 그 의무를 잊지 않았고 그 짐은 나에게 이사 왔다. 너무 오래 그렇게 살다보니 그분은 자신이 싫으면 남도 싫어한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했다. 하기 싫은 것을 평생 감당해야만 했던 삶은 얼마나 슬픈가. 아름답게 전시되기 위해 꼿꼿이 서 있는 박제의 삶은 얼마나 고단한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의 옆구리에 꽂힌 창.

투병의 마지막 시기, 나를 도와주던 여자들 또한 자기 몸에 박힌 창을 장대 삼아 높이뛰기를 하고 살았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 낮에는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고, 밤에서 새벽까지 단란주점에서 안주 감을 만들며 자식새끼 가르쳐 보려고 애쓰는 여자, 결혼 초기부터 사나흘 걸러 매 맞으며 갇힌 짐승처럼 살아온 여자,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착하고 부지런한 여자, 그러나 그 억압을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내일은... 내일은...."을 주술처럼 읊고 견디는 착한 여자, 멍청한 여자, 그래서 결국 멍든 여자. 그들은 나에게 희생하지 마라, 마음 없이 베풀지 마라, 당신이 감당할 만큼만 하라, 지나친 희생의 대가는 누군가 다시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중생이 아파 저도 앓아누웠다던 유마힐 거사 급은 못 되고, 나는 요새 내가 아프다 보니 아픈 사람이 눈에 잘 띈다. 안정과 지위라는 철사 줄에 매이고, 역할이나 의무 혹은 대의라는 쇠막대에 의지한 삶이 빚은 병. 내가 아는 여자들은 대체로 가난하지만 마음이 여려서 묵묵히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와 가슴에 뜸을 뜨며 매일 진물 나는 상처를 보아야 하는 나로서는 아픈 사람들을 보는 게 힘들어 눈을 질끈 감는다.

내가 아프니 네가 아픈 줄 알겠다

나는 요새 아줌마에 관심이 많다. 내가 아줌마면서도 미처 의식하지 못했고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기도 하는 아줌마라는 존재와 그들의 고통에 마음이 간다. 더불어 나는 치료에 관심이 많다. 독서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심지어 원예치료, 허브치료까지. 사실 의사를 떠올리게 하는 치료보다는 마음 心자가 들어간 치유(治癒)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긴 하지만. 암울했던 작년부터 나는 가까운 도서관에서 틈만 나면 그림책을 빌려다 보았다. 처음에는 딸아이가 보는 어린이용 그림책들을 보았다. 차츰 밝고 빛나는 순금색을 많이 사용하는 클림트라거나 은은히 빛의 투과를 보여주는 모네류의 그림에 손이 갔다. 그러다 인디언이나 이집트의 그림처럼 밝고 단순한 상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 일련의 행동이 무의식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안 것은 올 봄쯤이다. 내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하며 나는 그림 속의 환한 색과 만다라를 보면서 어둡고 지친 마음을 나도 몰래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친 김에 올 가을 나는 '표현예술심리치료'라는 이름도 길고 좀 난해한 공부를 시작했다. 한 학기에 23만원 하는 강좌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밌게 한다. 공부를 하며 나와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본다. 저번 주에는 MBTI라는 성격유형 공부를 했는데 검사 결과 나는 가장 사회 적응력이 낮고 소심하고 내향적인 성격으로 나왔다. 갈등과 대립에 취약하고 목표나 성과보다는 관계와 삶 자체를 추구하는 유용치 못한 인간형으로 드러난 것이다. 안 그래도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내적 딜레마를 안고 사는 인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갈등과 대립 속에서 살아왔는가. 술집에서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가고 싸움이 붙으면 심장이 뛰어 술도 못 마시는 소심한 인사가 필시 너무 유물론적 삶을 산 게 분명하다. 무기도 없이 뛰어들어 싸움 한복판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강팍한 삶의 언저리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그래서 한계가 없다고 착각하는 멍청한 머리 대신 몸이 먼저 팍 놔버린 것인가. 나는 최근 변했다. 웬만하면 내가 싫은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관성에 의해 움직인다 싶으면 의식하는 즉시 그만 둔다. 마음을 써도 해결되지 않을 일이면 아예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方下着과 simple life, 그것이 나의 모토가 되었다. 이런 변화는 나의 시어머니가 준 선물이다. 혹독한 시련과 함께 준.

늦봄 집 앞 주차장 모퉁이에 맨드라미와 봉숭아를 옮겨 심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자리에 또 한 자만큼 자란 봉숭아를 본다. 나며들며 저절로 눈이 간다. 꽃이 피면 피는대로 지면 지는대로 보기 좋다. 그는 내게 기쁨을 주기 위해 피지 않는다. 아름답다고 칭찬해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다. 열매를 거두어도 얼굴 찡그리지 않는다. 모든 생명은 저 생긴대로 산다. 그 결과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것이 자연이고 생명의 생리다. 아무리 큰 우물이라도 두레박을 쉬지 않으면 바닥 긁는 소리가 나고, 비록 옹달샘이라도 오래 고이면 지친 나그네의 목줄기를 적시는 시원한 감로수가 될 수 있는 것을.

"伐柯如何오 匪斧不克이니라, 伐柯伐柯여 其則不遠이로다" 도끼자루를 베자면 도끼 아니면 안 된다. 나무 베어 도끼를 만들려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자루가 바로 기준이 된다. 내가 원하는 바를 다른 이에게 해줄 것이며,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애써 하지 말 것이고, 남에게 시키지도 말 일이다.

김해자
시인.
61년 목포 출생
시집 〈無花果는 없다〉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경제와 더불어 정치민주화에서도
놀라운 성취를 이룩한 한국민의 당당한 발자취를.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한국의 저력, 한민족의 비전을
이야기 할 때마다 소중한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요.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역사가 생활속에서 참모습을 드러내는 곳
뜨거운 열정이 더불어 사는 삶의 원동력으로 되살아 나는 곳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는 바로 그 곳에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